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
단기급등 코스닥 변동성 확대
업종별 순환매 장세 지속될 듯

11일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정책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는 12일 장중 한때 4%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생되었고 2002년 4월 이후 16여년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한주간 5.44% 상승하며 873.05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활성화와 주요정책은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KRX300, 2월 5일 발표예정)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 ▲코스닥 소형주에 투자하는 코스닥스케일업 펀드(3000억원) 조성 ▲코스닥 기업 R&D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30%→40%) ▲혁신기업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코스닥 투자비용 높은(50%이상) 펀드에 코스닥 공모주물량 30%배정(기존의 기관물량은 50%→20%로 축소) 등이다.

코스닥활성화와 방안에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지난주 언급했듯이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의 출시이다.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영향력이 액티브펀드를 추월했기 때문에 특정종목의 벤치마크 지수 편입은 개별주식 수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지난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섀트리로 3인방을 중심으로 나타난 상승이 통합지수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100여개 정도의 코스닥종목이 KRX300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에 주목을 받고 있는 코스피200 종목보다 KRX300에 편입이 예상되는 코스닥 중형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요확대에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일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발표는 원화강세 요인과 반도체 부문 특별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로 4분기 매출액은 66조원과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삼성전자 실적발표 이후 외국인은 약45만 주(약 1조1000억원)를 순매도 했고 장중 한때 233만 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241만원(주간 7.5% 하락)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미국 3대지수의 연일 신고가 행진속에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지수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코스피지수의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급요일 장후반에 나타난 삼성전자와 IT주의 강한 반등처럼 상승 추세 복귀를 위한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주까지 코스닥 활성화 정책발표, CES 2018,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주요 이슈가 지나가고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코스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발표전 업종별 순환매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이사대우>

설 앞두고 과일값 떨어지고 한우값 오르고

사과 생산량 55만t, 배 11만3000t... 평년보다 많아 한우 도축 마릿수 줄어 공급 부족 수요 증가 값 꺾춤

명절 대표적인 선물세트로 꼽히는 한우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배와 사과의 몸값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년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선물세트 배와 사과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농업관측 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지난해 12월 선물세트용으로 적합한 대과(大果)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우박이나 탄저병 등으로 저급품 사과 출하가 많았고, 11월 가격까지 약세를 보이자 출하 대신 저장을 선택하는 사과재배 농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평년 사과 생산량을 상회했던 최근 3년(2015~2017) 동안 설 성수기 사과 가격이 평년 3만5800원(10kg 상품)보다 낮았다. 여기에 올해 사과 생산량이 55만t 규모로 평년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가오는 설 성수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의 가격은 사과에 비해 설 성수기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배 저장량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9~11월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가격 약세가 지속, 전년보다 6% 증가한 11만3000t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저장량이 증가한데다, 선물세트용으로 적합한 대과 저장 비율이 높고 품질까지 좋은 상품도 많아 다가오는 설 성수기 출하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

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과 도매가격은 10kg 기준 2만7562원으로 평년 1월 중순 2만9892원보다 7.8% 하락했다.

배도 같은 기간 15kg 기준 2만8292원으로, 평년 3만4379원에 비해 무려 17.7%나 값이 떨어진 상황



설 명절을 앞두고 대표적인 명절선물인 한우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배와 사과는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배 출하 작업 중인 농가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배 생육·품질관리·재배 정보 시스템 구축

농진청, 고품질 과실생산 도움

농촌진흥청은 배 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실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배 생육·품질관리 시스템(http://fruit.nihhs.go.kr)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배연구소, 과수과에서 협업을 통해 구축했다. 실시간 배 생육 및 재배 정보들을 제공해 불량한 기상환경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시스템은 생육, 품질관리, 기상·기후, 병해충, 농업기술 등 총 5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생육'에서는 배 주산지 8개 지역의 생육정보가 제공되며 각 재배지의 발아기, 만개기 및 착과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에서는 과실품질 정보와 품질추적관리 정보가 제공돼 성숙기 과실의 커지는 정도, 당도, 산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기후'에서는 기상·기후 모니터링이 있어 각 지역별 실시간 기상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



는 배 재배와 관련한 다양한 품종, 재배, 장애, 경영, 수확 후 관리, 동영상 정보 등이 있어 농업인이 쉽게 기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축되는 사과 작목 시스템도 빠른 시일에 완료해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수 토털 정보시스템을 갖춰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평균 저수율 56% ... 농어촌공사, 가뭄대응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는 14일 기후변화로 가뭄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제적 가뭄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전남지역의 평균 저수율은 56%다. 이는 평년대비 78% 수준으로 관심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18 영농대비 가뭄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사 수자원관리 부장과 업무담당자가 참석해 가뭄대응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우선 전남도와 함께 양수저류와 관정양수 등을 활용해 물재우기에 나서 저수율을 확보하는 등 올봄 농사철 전까지 정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저수율 '심각단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석근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이 변하고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올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급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14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9천 601만 달러(약 1조1663억원 상당)였다.

지난해 12월 수입실적은 오는 15일 공식 발표되지만, 11월 누계 수입액이 이미 전년 연간 수입액(9억6698만 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2000년 이후 연간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16만6432t으로, 전년 연간 수입물량(15만6078t)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1년 '소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한국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다 2003년 미국 내 광우병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연합뉴스>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용,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팅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오페이지 레전드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2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시공사례
3중안벽 단열방수 시공사례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충북문화재단 옥상사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군보건의료연구원/대림대학교/태백시보건의료연구원/순천대학교/순천대학교/인제대학교/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